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문이 없기에 法門, 법이 없기에 佛法

☞ 15면에서 계속

게 다 자기 앞에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난 어떤 때 보면 이상스러운 것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보면 아, 자기가 먹었으면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면 어디가 어떻게 잘못 되는지 골골이 그냥 쓰레기를 버려서 온통 악취가 나고 참 보기가 안좋더라구요. 그러면 그 오물 속에서 독충이 얼마나 일어나며, 독충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게 안개처럼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로 오느냐. 버린 사람들한테, 우리들한테 도로 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버린 사람만 그 과보를 받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직접 버리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백 사람 천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고통을 받게 돼 있고요.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생활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는 데 있어 그냥 막 허투로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함부로 막 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공부를 튼튼하게 하지 못한 관계상 그런 행도 하고 저런 행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세균이 모두 독충인데 나한테 달려들면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털구멍을 통하고 귓구멍, 눈구멍, 콧구멍을 통해서 입으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병이 걸리고, 요새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또 나무에도 곤충들이 생겨가지고는 전부 뿌리가 상하게 되고, 식물을 심어 놓으면 독충이 전부 그냥 달려들어 먹어 치워서 피해가 가게 하는 것도, 그것도 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죠. 우리 사람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 한번 잘못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 번 해놓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열 번을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면 열 번 거짓말을 하다 자꾸자꾸 이게 번져지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주 거짓말로다가 왕창 커지게 되죠. 거짓말 조그마한 거 하나가 그렇게 왕창 커진다는 거, 우리가 조그마한 거 하나 버려서 거기서 독충이 생겨서 우리 국민을, 세계인을 전부 그렇게 나쁘게 만든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하나, 생활하는 거 하나도 그냥 허투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럭하는 사람이 좀더 줄고, 그럭하는 사람이 없어야만이 우리 사는 데도 병이 덜 걸리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마음의 작용에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것도, 좀 더 이런 공부를 했다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물 한모금 마실 때도 이 물이 느낌이 좀 안좋다 하면 그런 거를 건의해서 제대로 하게끔 할 수 있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도 나는 귀찮더라도 모두를 위해 한번 더 곰곰히, 달리 생각해 보기도 하는 이런 자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유익되게 해 줘요. 이 마음공부라는 거 위로는 부모 조상들, 아래로는 자녀들, 또 나가서는 친구들, 형제들, 부부지간에 있어서도 어떠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 다 커버할 수 있는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전체, 외부나 내부가 전부 둘이 아니게 해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내 몸뚱이 걸의 문제에서 안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내 안의 문제에서 모든 물질의 문제들을 더불어 함께 해결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다면 여러분이 물리가 다 터지게 되고 들으면 들는 대로 그게 법이 되고, 보면 보는 대로 법이 되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한데 떨어지지 않고 법이 되는 그런 실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생 중생의 의미

문 큰스님의 법문 중에 '자생중생'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며, 아울러 주인공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 주인공이 뿌리라면 그 뿌리를 통해 사대육신이 움죽거리게 되는 것은 바로 오장육부와 삼백육십개의 골절과 팔만사천의 털구멍을 통해서 삼백육십개의 뼈마디와 팔만사천의 세균, 즉 여러분의 몸 속에 이 모든 자생중생들이 각자 여러분의 신하가 돼서 자유스럽게 들고 나면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에너지는 한 구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바로 자기 영혼에 한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근본이 아버지에겐 뼈를 빌고 어머니에겐 살을 빌어서 정자 난자를 통해서 바로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돼서 임신이 됐을 때는 그 조그마한 세균 하나에 보이지 않는 인과가, 즉 말하자면 악업 선업이 한데 뭉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는 대로 그게 화해서 이 몸뚱이 하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나는 무슨 죄를 졌나, 나는 무슨 업이 많아서 이런가 하시지마는 내가 볼 때는 딱하긴 딱하지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이니 바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업식으로 인해서 인과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 병고다, 액난이다,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영계성이 생긴다, 세균성이 생긴다, 업보성이 생긴다, 인과성이 생긴다 하는 것도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만 없어지겠습니까. 그 나온 자리에다 되맡겨 놔야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온 자리는 바로 통신처도 되고, 생산처도 되고, 여러 가지 무명을 녹이고, 업보를 녹이고 일체 만법의 근원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고,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멍이 아니면 어떻게 면제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뿌린 거는 내가 받듯이, 내가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입력된 것이기 때문에 정신계로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들은 중생을 부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몸은 배로, 몸 안에 들은 생명은 중생으로, 우리 불성은 바로 선장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 생명들 즉, 속의 중생들은 지금 배를 타고 온갖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생들도 건지고 배도 잘 가게끔 이끌어야 할 텐데 선장과 같이 한마음이 되질 않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선장한테 모든 거를 맡겨 놓고 '너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 수 있다.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사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지혜롭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그 나고 드는 한 구멍에다가 모두 놔야 선장이 그 뜻을 받아서 오로지 이 의식들과 전체가 한마음이 돼서 해결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있는 줄을 알게끔 하죠. 그게 깨우침이니까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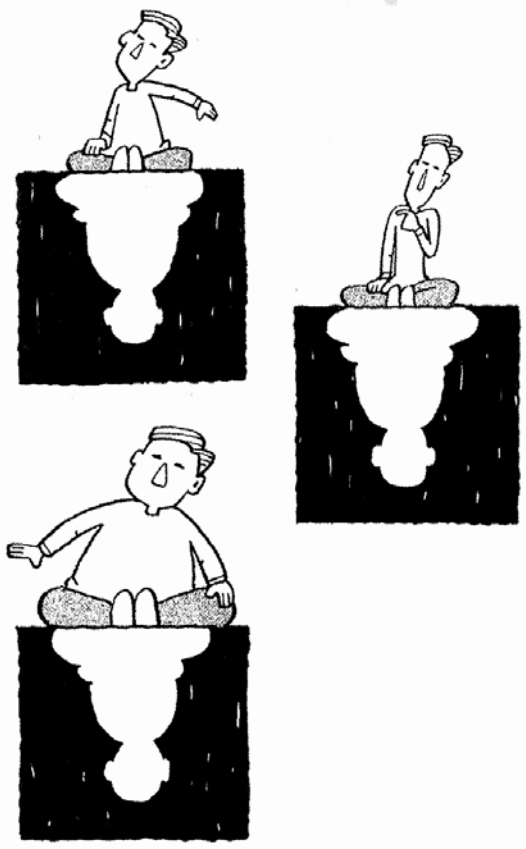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살면서 질서를 지키며
도의와 시간을 지키고
부드럽고 行 앞서야 마음공부

바람도 물도 마음이 있는지…

문 자식을 부처님 곁에 보낸 후 6개월여 만에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병든 아들이 부처님 곁으로 가고 지금까지 오직 주인공만 생각하고 주인공을 그리워하며 눈물지어 왔습니다. 화가 나도 놓고, 답답해도 놓고, 주인공이 보고 싶어 하염없이 울고, 꿈속에서도 주인공이 보고 싶어 하늘을 보고 땅을 치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또 놓고 하여 마음이 편한가 싶으면 또 다시 주인공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음에 큰 경계가 왔었는데 추풍낙엽처럼 무너졌습니다. 좌선을 해서 유체이탈을 하고 촛불을 보면 무얼 합니까? 마음이 무너지니 몽땅 내려앉더군요. 그래서 생각는 것이 '아! 일체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마음을 잡을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자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무도, 바람도, 새도, 가족도 모두 감사해서 눈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하지만 주인공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합니까? 또 임제선사께서, 지수화풍 사대는 들을 수도 법을 설할 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바람도 물도 사대인데 마음이 있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답 경전을 본다 하더라도 글자를 배워서 익히라고 경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글자를 보지 말고 그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여러분을 보지 않게 해야 하고, 여러분이 책을 보지 않게 볼 수 있어야만 그걸 진짜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법문(法門)' 이렇게도 하는데 문이 있어서 법문이 아닙니다. 문이 없기 때문에 '법문' 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佛法)' 이렇게 말하죠? 불법은 불법이 없다는 것도 속합니다. 너무나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는 까닭에 불법은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체가 없는데 문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겠습니까? 당장 지금 죽어가는데 벽이라도 뚫고 들어가야지 언제 문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문이 없는 문을 알아야지 문을 그렇게 찾아다닌다면 공부 못해요.

그리고 부처님도 둘로 보지 마세요. 부처님 마음이 여러 보살의 이름으로 탄생을 했지만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 부처님의 마음, 즉 한마음 속에서 전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진짜 제대로 배우고 가신다면 형상의 부처님을 뵙더라도 너무나 성스럽고 위대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도리를 모르면 '그냥 만들어 놓은 불상인데 뭐.' 이러시겠지만, 완전히 터득을 하신다면 하다못해 돌 하나 세워놓은 것도 살아서 움죽거리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미 과거로 돌아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은 물같이 살라 하고 산은 산같이 살라 합니다. 보십시오. 봄이 되니 싹이 나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봄을 기다리며 나무는 인내하며 놓고 갑니다. 나무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뜻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법(觀法)은 누우나 앉으나, 내가 좀 참구해 보겠다 하고 지켜보면서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는 것이 관법입니다. 당신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지 바깥에서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공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뛰어넘고 뛰어넘는 교차로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죽을 것이고, 내쉬고 들이쉴 수 없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 양면이 교차하는 그런 틈에서 숨을 쉬고 그대로 살아있는 바로 그놈이 있으니까 그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놈밖에 없다고 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들이고 내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없다면 들이고 낼 건덕지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이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냉이라는, 종이라는, 집이라는 육신에 50%가 달려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50%의 물질이 없다면 이 참마음도 알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과 저것을 분리하고 나누려는 생각도 그 자리에 그냥 들려 놓고 참다운 지혜가 나오게 하는 것도 당신밖에 없으니 글자의 소식 말고 내면의 소식을 알게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며 관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샛별의 의미

문 부처님께서 새벽녘에 샛별을 보고 깨우쳤다고 하셨는데, 그 샛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부처님께서 동쪽의 샛별을 보고 깨우쳤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하자면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샛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불(自佛)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샛별을 보고 깨우치셨다는 말에서 샛별은 자기 근본을 이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본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딱 태어나서 으앙하고 우는 것은 샛별이 밝게 터지는 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성도 옷을 입고 있어요. 별성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는 거지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별성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에 의해서 반사가 돼서 마음으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반사를 이루고 바로 그 보이는 모습으로 인해서 물에도 비치는 겁니다. 우리도 그 마음의 근본적인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가 있고, 낼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움죽거릴 수가 있고 또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고 지혜로운 마음을 비춰줄 수도 있고 스스로, 보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서로를 상응할 수 있고 무생들의, 그 무수한 천차만별로 돼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들에게 서로 상응할 수 있고 보이는 마음들하고도 같이 상응할 수도 있고 모습도 같이 모이면서 헤어지고 헤어지면 모이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세세생생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샛별과 상봉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놓고 가든지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수 있다면 내 속의 생명들도 다 같이 따라서 하나가 돼줍니다. 오로지 한 군데다, 의식들도 다 그냥 오로지 한 군데다 하게 되면, 그러면 내 안의 모든 의식들이 샛별의 식구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육신으로 임신을 해서 이 세상에 육신이 나왔어요. 그러다 육신이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하니까 이제는 마음을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태어나야지 육신과 더불어 실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같이 저울에 달아도 기울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세계도 버려서 되는 게 아니고, 즉 말하자면 육신을 버리면 공부를 못해요. 육신도 소중하고 정신계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계로 인해서 육신이 생겼거든요. 정신계로 인해서 육신이 형성됐고 형성된 자체를 끌고다니는 정신계의 주인공과 바로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그 이치, 그런 이치가 깃들어 있는 말이 샛별이라는 겁니다. 이걸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저 이렇게라도 하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그 마음의 샛별을 보고 다 눈을 뜨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문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이 불교의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답 불교에서는 '자신을 발견하라. 너부터 알고 너부터 발견해야만이 영원하다' 고 했는데 어떤 다른 종교에서처럼 상대를 보고 믿고 상대를 보고 기도를 한다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에서 본다면 '자기부터 알았으면 그 도리를 모두 알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서도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상대를 놓고 빌고 그런다면 그것은 자기를 발견할 수도 없거니와 자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자기가 자기를 믿게끔만 해준다면 어디로 뒹굴어져도 거기 있고 저리로 뒹굴어져도 거기, 주처가 거기 있기 때문에 도움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분은 따로 계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런다면 나는 항상 중생일 뿐입니다. 능력있는 분이 따로 있고 내가 그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바깥으로 찾는다면 내가 될 수 없다는 말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겉으로 생긴 게 아니라 속에 종자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불성 종자가 없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의 종자는 바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주장자라야 되겠죠.

얼른 쉽게 말해서, 나로부터 주처가 있고 나로부터 이 몸뚱이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전체가, 우주 전체가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를 알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상대의 이름이 돼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자기는 항상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법당에 들어오면 당신이 법당에 들어 왔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당신이 법당에 왔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는 것이지, 당신이 법당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형상도 자기의 형상과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요, 전체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도(道)란 곧 마음이죠. 이 마음이 벗어난다면 정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모습을 해가지고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불교는 자기 구원의 종교이며 스스로 그 자생중생들을 다 제도하여 자유자재권을 송두리째 얻는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파른 언덕을 넘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